

“내수부진 지속”...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먹구름

새해 1분기도 ‘침체’...영업이익·자금사정 어려움 지속 대외 리스크에 회복 지연...내수진작 등 정부 대책 시급

광주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소폭 반등했지만 기준치를 밑도는 침체 국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대외 리스크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회복 기대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12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전 분기(85) 대비 4p 상승한

‘89’로 집계됐다. 다만, BSI 기준치인 100에는 여전히 못 미쳐 다음 분기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경기 침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보호무역 기조, 관세 리스크 현실화,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역 제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가로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항목별로는 매출액(86→86), 설비투자(88→93)는 전 분기 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으나 영업이익(81→79), 자금사정(77→71)은 오히려 감소했다.

신차 양산 본격화, 3월 정부 예산 집행에 따른 수주 회복 기대 등 긍정적 요인에 불구하고 고환율·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과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등 구조적 약제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자금 흐름이 나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듯 연초 목표 대비 올해 매출 실적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0.9%가 ‘미달’이라고 응답했으며

‘연간 목표 달성(21.7%)’, ‘10%이내 초과달성(5.0%)’이 뒤를 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75.8%가 ‘미달’이라고 답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영업이익에 확보에 가장 부담이 된 요인으로는 78.3%가 ‘원부자재가격 변동’이라고 답했으며 ‘인건비 부담(58.3%)’, ‘환율요인(30.8%)’, ‘관세 및 통상 비용(15.0%)’ 순으로 응답해 비용상승 압박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고환율 상황이 귀사의 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조달·국내 판매 중심으로 영향 미미(3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출

비중 작고, 수입의존도 높아 실적 악화’ 23.3%, ‘수출비중 높지만, 수입원가부담 커져 실적악화’ 14.2%, ‘수출비중 높아 실적 개선’ 10.0%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식음료(100)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부 업종별로는 대·중견기업(93→86)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전기차 등 주력 산업의 판매 둔화,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중소기업(84→90) 또한 건설 경기 침체와 동절기 부수기 영향 등으로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규모별로는 수출기업(81→86), 내수기업(87→90) 모두 지난 분기보다 지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내수 소비 위축, 원가 부담 등의 약제로 인해 불투명한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회복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지역 제조업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내수 진작, 공급망 안정, 수출 지원, 투자 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보험료 받는다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실업급여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소상공인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시 금융 및 정책 지원 혜택도 강화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 후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가점 3점이 부여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nozyb@gmail.com



조미세먼지 예고 속 공기청정기 매출 급증. 올해 겨울이 조미세먼지(PM2.5)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기청정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4일까지 공기청정기 매출은 전년 대비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취업 돕는 현장실습 ‘눈길’

지역 대학생 대상...실무 부서 4주간 교육

광주신세계가 지역 인재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29일 광주신세계는 최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업과 마케팅 등 현장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2025학년도 동계 현장실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대학생 12명

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4주 동안 마케팅 및 영업부서를 돌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경험하고 유통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실습 1주차에는 영업과 마케팅 등 실무 부서들과 만남을 통해 직무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2주차에는 고객상담실 등 고객 접점 부

서에서 실무자들과 함께 실제 직무를 체험하며, 3주차에는 유통업 등 산업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코칭을 받게 된다.

마지막 4주차에는 개인별 포트폴리오 작성과 발표를 통해 실제 취업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얻는다.

특히 광주신세계의 현장실습교육은 매 회차마다 세부 프로그램이 변경된다.

실습 과정 후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올해 하게 현장실습 때는 스포츠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장 반응 분석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

K-웹툰산업 날개...7년 연속 성장세

콘진원 실태조사...2조2856억 규모 전년 비 4.4% ↑

대한민국 웹툰산업이 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산업 규모는 2조285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웹툰산업 규모는 지난 2017년 3799억원을 시작으로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웹툰산업 수출의 관여권 분포를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일본(49.5%), 북미(21.0%), 중화권(13.0%), 동남아시아(9.5%), 유럽(6.2%) 순이다. 일본과 북미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각 9.2%p, 1.3%p 증

가했고, 중화권을 포함한 하위 권역 비중은 감소했다.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과제는 외부 자금 및 투자 유치 지원(42.2%), 불법복제 사이트 규제 강화(35.4%)가 꼽혔다.

또 해외 진출 측면에서는 해외 현지화 지원(54.6%)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됐다. 다만 플랫폼사는 해외 저작권 관련 지원(42.5%)을, 콘텐츠제작사(CP)사는 해외 유통 네트워크 구축(66.1%)에 대한 요구가 높아 해외 진출 과정에서 사업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책이 다름이 확인됐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스타벅스, 베어리스타 콜드컵 재출시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스타벅스의 ‘베어리스타 콜드컵’이 29일 국내에 재출시했다.

베어리스타 콜드컵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단독 디자인해 지난 2023년 가을 프로모션에 선보인 한정 상품으로 프로모션 당시 기간 내 준비된 모든 수량이 완판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베어리스타 콜드컵은 스타벅스의 대표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형상화한 디자



인어 특징으로 591ml 용량의 컵에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비니모양의 실리컨 뚜껑과 그린 스트로우가 세트로 구성된 곳이다.

특히 어떤 음료를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베어리스타의 모습을 인종하는 재미가 있어 인증샷 콘텐츠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

CHO JUNG SEOK

SHOW

2025-26 전국투어 콘서트

2026.1.3 SAT 18:00 광주예술의전당

2026.1.4 SUN 15:00 대극장

주최 제작 JAM 주관 (사)공연마루 예매처 NOLticket 1544-1555 리케팅 1598-7890